

음주행태로 본 한국인의 정서

알면 약되고 모르면 독되는 야누스의 얼굴

반 권 호
(의대 교수)

음주 인류 역사와 밀접히 관련 요즘 대작 문화는 변질된 것

개강과 함께 시작되는 술자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문회까지 술자리는 연이어진다. 그러나 가끔은 화합을 다지기 위한 술자리가 사소한 시비와 잘못된 인습으로 얼룩지기도 한다. 이에 학술부는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구현하고자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와 정서구조를 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남학생은 전복대를 붙들고 우여곡절하며 여학생이 등을 두드리며 정겨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요즘도 정겨운 모습은 변함없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남녀가 바

뀌어 여학생이 토하고 남학생이 등을 두드리다. 심지어 만취한 여학생을 남학생이 업고 가는 부러운 정경도 자주 볼 수 있다. 요즘 같은 신학기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신입생환영회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대학생이 급사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행태를 과연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필수덕목으로 간주하고 허용해야 할 것인가? 대학생들은 물론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생활에 대해 재고하고자 이 글을 쓴다.

술의 유래는 실로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아 뉘 수가 없다. 우리의 단군신화에서는 단군께서 백성

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가을에 햇곡이 나면 높은 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햇곡으로 만든 술과 떡, 그리고 소를 잡아 제물로 썼다고 한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Bacchus가 처음 술을 빚었다 하여 그를 술의 신으로 불렀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고 한다. 술은 이렇듯 신화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술의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정신과학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콜중독에 대한 질병개념을 도입하였고 강력한 진단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지역 정신과 의사와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의 정신증상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중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알콜중독증상에 대한 것이라는 연구조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과 의사, 일반의사, 한의사, 일반대중의 순으로 알콜중독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의 음주에 대한 수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 예를 든 '토학생(吐學生: 토하는 학생)'의 경

우 정신의학적 진단은 '급성 알콜중독'일 것이다. 아마도 이 학생은 다음날 아침 전날밤의 자신의 행적 중 일부에 대해 '필름이 끊어짐'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정신의학 용어로 '알콜로 인한 기억상실'에 해당한다. 술을 마실수록 점차 주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내성이 생김'이다. 학생들은 이를 '술이 세졌다', '남자다워졌다', '사람됐다'라며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병자가 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렇듯 급성중독증상을 여러차례 거치고 '내성'이 생기면서 점차 '알콜 의존', '알콜남용'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일부 '토학생'들은 그런 사람을 가라켜 주선(酒仙), 주신(酒神)으로 부른다. 물론 확실한 '알콜 의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히 금전 및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중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대작문화(對酌文化) 혹은 술잔돌리기이다. 유럽이나 중국인의 음주 원형은 독작(獨酌) 형태이다. 그러나 과거 조상들의 대작문화가 일부 토학생들이 하듯이 폭탄주나 주안으로 냉면그릇쓰기였을까? 필자는 대작문화의 기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신라시대 포석정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마치 포석정이 망국의 상징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군

신 일체의 의의를 갖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조선시대도 관아에 새 관원이 부임할 경우 이 절소를 얹고 합심하는 뜻에서 대포잔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말 보부상들도 대포로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결속을 다졌다고 한다. 전통 향음주례(鄕飲酒禮)에서는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권하되 술잔을 돌릴 때마다 손과 잔을 씻고 술잔을 주고받을 때마다 큰 절을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대작문화를 군대문화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이렇듯 조상들의 정신적, 정서적 맺이 담긴 우리 고유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일부 '토학생'들의 대작문화는 변질된 형태의 문화이며, 앞서 말한 '급성 알콜 중독'상태를 유발하는 병적 행태로 보인다.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술만큼 사람의 기분을 빠르고 쉽게 유쾌하게 만드는 약물을 본 적이 없는 바 가히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 할만 하지만, 알콜중독으로 본인 과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피해를 주는 환자들을 볼 때 역시 패가망신지한원(敗家亡身之根源)이라 할만하다. 술은 이렇듯 극단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다. 기쁨과 즐거움, 위안을 얻기 위해 마시는 술이 자신은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술이 인간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술이야말로 대학생들에서, 인생에서 더불어 함께 가는 가장 좋은 벗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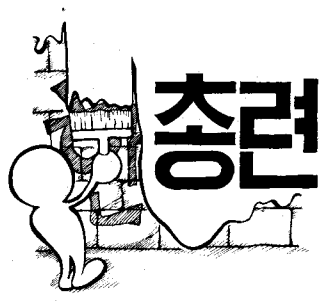


▲요 몇년사이 급증한 학교 앞 술집들

세시봉

한총련 개혁통해 거듭나야

김동욱 논설부장



한총련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작년 연세대에서 벌어졌던 대대적인 한총련 소탕작전 이후 많은 여론들과 정치인들은 그들을 좌익세력으로 매도했고 항간엔 한총련이 와해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한총련은 조금씩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호남대에선 '남총련 집회를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이 교문앞에 모여 서서 호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총련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집회 반대에 대해 호남대 김성훈 총학생회장은 "선거와 축제 때를 제외하곤 학내 학생시 사용은 금하겠다는 선거공약때문이었다"라 말했다. 또한 '한총련이 지금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한 탈퇴하겠다'라는 선거공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철저히 부정했다고 밝혔다. 철저히 신뢰하고 연대해야 할 조직체에서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운동권에 큰 파장을 남겼을 것이다.

또한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이번 학기 초 '한총련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총련 납부금을 내지않겠다'라 성명을 냈고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한총련 의장후보 추천에선 전북총련측에서 '지금의 한총련을 변화시킬 인물이 아니다'라며 전북대와 고려대에서 출마한 두 명의 후보추천을 거부했다. 그 후 전북총련은 '선거공약을 통해 나타나는 움직임을 무시하겠다'라며 추천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총련 집회를 반대했던 호남대 총학생회와 한총련 납부금을 거부한 연세대 총학생회는 기존의 한총련 노선과는 다른 학생운동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을 학생운동에서 계속되어온 운동노선간의 마찰로 일축할 수도 있겠으나 '한총련의 시위방식과 의사결정방식은 비 민주적이며 예산집행은 폐쇄적이다'라 말했던 호남대 총학생회자의 말은 노선에 대한 비판보다는 조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한 한총련 내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오고 있다.

한총련의 변화는 이제 대세인 듯 싶다. 한총련 조직의 내부구조부터 기본적인 운동노선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한 한총련은 계속적인 자기수정을 해야 하겠다.

강요하는 음주문화 위험



김춘애

(경희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밤늦게 실려오는 건 거의 술로 인한 사고환자죠. 알콜성으로 인한 호흡곤란에서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구르는 경우 심지어 싸움이 붙어 칼에 찔리는 경우까지 술이 '범인'인 경우는 다반사. 그러나 이렇

게 심한 경우는 일부 일반인들이고 학생들은 대체로 술을 못이겨 찾아온다. 하루에 실려오는 학생 수는 평균 4, 5명. 학기초 특히 금요일날 밤에 가장 많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적으로는 수가 줄었는데 여학생 수는 늘어났다는 것. 김춘애간호사는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여학생들의 음주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주량은 체질에 따라 다르고 무턱대고 많이 마신다고 갑자기 느는 것이 아니므로 술을 못마시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특히 술자리에서 열사람이 술취기 곤란하거나 경기를 일으킬 때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거나 입술 색깔이 변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데려와야 한다. <최수정 기자>

"요즘 학생들은 그냥 손님이지"



허욱

(일번지 주인)

"노가리 하나씩 돌려 주고 선 계속 술만 먹었지 안주는 그이상 안시켜"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곳. 일번지를 15년동안 운영해오신 허욱씨는 옛날 학생들의 거친 술버릇을 회상하며 옛것에 잠긴다.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술자리 풍경만큼은 가볍지 않았던 그때. 술은 시대를 향한 젊은 열정을 달래주는 위안이었다. 둘러 앉아 데모가를 부르고 정치나 교수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그때는 술집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과도 손님 이상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들의 기호가 바뀌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다.

"요즘 학생들은 그냥 손님이지" 아저씨는 옛정이 그리운듯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안타까워했다. 술 마시는 분위기는 옛날과 달라 대체로 가볍게 즐기는 정도다. 낙서장도 00왔다 감, 기분 좋다, 00사랑한다 등의 순간적인 기분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문구가 대부분이고 예전처럼 '학문을 가르쳐야 할 교수'가 형문같은 소리

만 한다' 등의 날카로운 비판을 찾아 보기 힘들다. 더구나 요즘은 락카페 등의 사치스러운 공간이 많이 생겨 10년 전의 순수한 낭만 느끼기는 더욱 힘든 것 같아다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아저씨는 그래도 전반적인 술문화가 나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예전처럼 바다가 아무렇게나 휴지를 버린다면가 짐을 뺄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술도 기분좋을 만큼 적당히 마신다. 대신 안주는 푸짐하게 많이 시킨다고.

가끔 졸업생들이 잊지 않고 찾아오면 너무 반갑다는 아저씨는 술을 많이 마시던 학생들이 모두 잘 돼서 기분 좋다며 웃으셨다.

(강재은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뭐, 애가 킹카라구?

쫄쫄, 진짜 킹카를 몰라보는군. 걸만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진짜 우리학교 정보통. 유니텔에서 주로 정보를 얻는다더군. 옆구리의 586 목록 1호지. 해커를 잡을 정도니까 컴실력은 알만 하겠지. 후후, 아마 앓을까? 웃는 모습이 왠지 끌리는 녀석. 알고보니 컴퓨터통신 유니텔킹카, E-Mail로 꼭 한번 만나자고 해야겠어. 가만 먼저 유니텔에 가입을 해야겠는걸...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컴퓨터통신, 유니텔



매력을 알면 너도 반할 걸.
펜티엄 노트북이 그의 재산
사랑도 펜티엄급으로 하지
유니텔에선 킹카로 통하더군.
ID가 뭐더라? 아니, 그보다



유니텔 가입문의: (02)528-0114-7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회사



삼성데이터시스템